

# 틈나는 시간에 동네서 일해요 '당근광산 일자리' 만족

### 광산구-당근 협업 '일자리 프로젝트' 주부·퇴직자·청년 등 363명 참여

"발달장애 아이들을 보조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일 중 가장 보람 있었어요. 너무 좋은 일자리였던 거 같아요."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지역 기반 민간플랫폼 '당근'과 협업해 선보인 '당근광산 일자리'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근광산 일자리'는 광산구와 ㈜당근이 함께 추진하는 '당근광산(당신 근처의 광산) 프로젝트'로, 누구나 잠깐 틈나는 시간에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연결 체계를 구축해 좋은 공공일 자리를 창출하여 참여자들이 보람까지 느끼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28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마을·동네에 있는 복지관, 작은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37개 공공시설의 일감을 발굴해 시민과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모바일 앱(당근)을 활용해 광산구가 각 시설의 요청에 따른 구인 정보를 올리면, 이를 확인한 시민이 신청하고,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모집 분야는 지역아동센터 기초학습지도, 프로그램 활동 보조, 작은도서관 도서 정리, 이용자 편의 지원, 어린이집 돌봄 업무 보조 등 공익적 일자리로, 참여자에게 생환임금(지난해 기준 지급 1만 1930원) 기준의 수당을 지급한다.

광산구는 취약계층, 일부 자격 있는 시민 등 대상이 한정적인 기존 일자리 사업과 달리 '無(무)자격, 無경력, 無우대'로 광산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바일 앱을 통해 일자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편리하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난해 106건의 모집 공고를 통해 363명이 당근광산 일자리에 참여했다.

공공근로 등 지자체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은 중



'당근광산 일자리' 참여자들이 광산구청소년수련관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활동 보조를 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장년, 노년층 참여 비중이 높은 데 반해 당근광산 일자리는 10~30대 청소년과 청년, 주부,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한 게 특징이다.

무엇보다 가까운 곳에서 잠깐 시간을 내 최저임금보다 나은 조건으로 이웃,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 시민의 참여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참여자들이 모바일 앱에 남긴 후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경력 단절 아이 엄마'라고 밝힌 시민은 '한두 시간 짬을 내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후기를 남겼다.

용돈벌이를 할 수 있어 좋았다는 취업준비생, 자존감을 되찾았다는 퇴직자의 후기나 당근광산 일자리 참여를 계기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글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대성공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을 준비 중

인 광산구는 최근 참여했던 시민과 함께 당근광산 일자리 확대 방안 모색 공론장을 진행했다.

"더 많은, 더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일자리 수요자와 공급자 간 '커뮤니티'를 만들어달라", "광산당근"을 브랜드화 일자리처럼 광산의 모든 것을 시민과 연결했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진행한 광산구는 시민 의견을 올해 당근광산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공론장, 설문조사 등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해 올해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근광산 일자리가 시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 모델로 발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자전거 수리하러 직접 찾아갑니다"

### 광산구, 찾아가는 이동수리서비스

광주 광산구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전거 활성화 정책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는 3월부터 주 3회 운영 예정이다. 광산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을 거점으로, 순회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한다.

자전거 수리전문가 2명이 현장에서 체인, 기어, 브레이크 등을 무료로 점검하고, 자전거 바퀴 구멍(펑크) 등 경정비 위주로 무상·실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 장소를 선정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가 시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의 제고는 물론 고장 등의 이유로 방치된 자전거 재이용을 촉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와 관련한



광산구 쌍암동 '청소년작업장 방치자전거 재사용센터'에 전달된 자전거 부품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명품길추진단 자전거회(062-960-4108)에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환경 질적 수준 제고, 자전거 이용자 중심 편의시설 조성,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 개선, 지체인형 이동장치로 보장을 확대한 자전거보험 지속 시행 등 다양한 자전거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의회 의정활동비 주민의견 수렴...3월6일 공청회

광주 광산구는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월 6일 오후 4시 수완문화체육센터(1층 공영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가 상향됨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장영)가 지난 1월 30일과 지난 13일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월 110만원에

서 월 150만원 이내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광산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등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신봉증을 지참하고 참여하면 된다. 또 온라인을 통해 의정활동비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광산구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된 주민의견서를 2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전자우편),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

## 예산 편성·집행 참여...광산구 '시민 주도 참여예산' 내실화

### 예산 13억 편성 맞춤사업 발굴

### 외국인·청년·장애인 참여 확대

광주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이 시민 스스로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 실행하는 '시민 주도형 참여예산'으로 거듭난다.

광산구는 최근 구정 상황실에서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유회'를 개최하고, '상생 협력으로 시민이 이끄는 주민참여예산제 선진형 모델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주민참여예산 운영 고도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집행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광산구는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편성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

원(8%) 많은 13억 원으로 편성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반참여형(1억 5000만 원)', 동 마을 단위 의제와 현안 사업을 뒷받침하는 '자치계획형(9억 원)' 예산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선 8기 구정 철학과 올해 핵심 목표인 광산형 자치분권 구현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또 외국인주민,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한다. 지난 1월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 외국인주민, 장애인 등 신규위원을 위촉했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도 대상자 맞춤형 교육으로 개선한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 이해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는 4-5월 중 추진할 예정으로, 단순 일회성 교육을 넘어 외국인주민, 청(소)년, 장애인 등 각 세대, 계층에 필요

한 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정책 관련 사업을 제안받는 '청년참여형(5000만 원)'은 심사와 선정 등의 과정을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총회 등과 연계해 지역 청년의 목소리와 생각이 반영되도록 한다.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 사업의 분야, 성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사업 타당성·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온라인 창구도 시민이 이용하기 쉽게 개편한다. 참여예산제 운영 전반은 광산구 누리집에서, 사업 발굴, 검토, 선정을 위한 투표 등은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공모는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부서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민관협력 쪽방 거주 장애인 새 보금자리 마련

광주 광산구가 민·관 협력으로 쪽방에서 거주하던 장애인 세대에 쾌적한 새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28일 광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장애인 A씨는 가족과 단절된 채 화장실도 갖춰지지 않은 쪽방에서 그동안 살아왔으나 그마저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계속 집을 옮겨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됐다.

광산구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가 의심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도 조사·상담 등을 통해 A씨의 문제를 파악해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로 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자원을 연결했다.

먼저 광주시 종합주거복지센터의 '주거취약세

대 주거상향지원사업' 대상자로 신청해 집을 알아보는 것부터 계약, 이사 준비 등의 과정을 동행하며 도움을 줬다. 이사 하기 전까지 주거 위기 가구를 위한 임시 거주 공간에서 생활할 수도 있었다.

A씨는 3개월의 준비를 거쳐 지난 20일 새 주거지로 최종 이주를 마쳤다. 이곳은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한 곳으로, 기초주거급여를 연계해 월세 부담도 해소했다. 이사 전 입주 청소는 자원 봉사자들이 힘을 보탰다. 광산구는 사례관리사업비로 이사 비용과 필수가전을 지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